애환의 무등경기장 46년만에 역사속으로…

스포츠서 정치까지 '지역민의 광장'

준공 첫해 전국체전 개회식서 14명 압사 비극
60~70년대 정치연설·시국대회 단골장소로

지난 46년간 광주·전남 체육발전의 견인차 구실을 해오며 지역민과 애환을 함께했던 광주 무등경기장 주 경기장(이하 무등경기장)이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광주 무등경기장이 오는 24일 광주 새 야구장 기공식과 함께 철거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광주 무등경기장은 지난 1965년 제46회 전국체전 개최를 위해 시민 성금과 국비·시비, 대한체육회 보조금 등 총 사업비 1억2071만 원을 들여 건립됐다. 당시에는 '광주 공설운동장'으로 불렸다. 무등경기장이라는 이름은 1977년 제58회 전국체전 때부터 사용됐다.

당시 광주에 변변한 종합경기장이 하나 없었던 탓에 종합경기장 건립 자금 모금에 많은 시민이 참여했다. 시민과 공무원·학생 등이 참여해 7100여 만원을 모았다. 공사비의 60%를 시민들이 성금으로 모은 셈이다.

당시 무등경기장은 총 부지 면적이 2만8000평이었고, 주경기장인 메인스타디움은 8000평에 수용인원 3만명, 야구장은 5000평 규모에 1만명이 넘는 관중을 수용할 수 있었다.

건립되자마자 무등경기장은 사상 최대의 비극을 겪기도 했다. 경기장이 준공된 해인 1965년 10월에 개최됐던 제46회 전국체육대회 개회식에서 14명이 압사하는 사고가 빚어졌다. 전국체전 개회식을 보기 위해 새벽 2시부터 밀려든 인파가 10만 명에 이르자 급기야 대회 주최 측이 정문을 폐쇄했다.

이 과정에서 정문의 철문이 수많은 관중에 의해 밀려 넘어지면서 14명이 숨지고 60여명이 크게 다치는 비극이 벌어졌다. 대회 측의 운영 미숙으로 참극을 겪기도 했던 무등경기장은 이후 1977년 제58회 전국체전과 소년체전 등 각종 체육대회의 메인스타디움으로 사용되면서 사실상 광주·전남 체육발전의 견인차 구실을 했다.

이밖에 무등경기장은 60년대와 70년대에는 주요 정치연설과 반공궐기대회, 관변 단체들의 각종 시국대회 등의 단골장소로 사용되기도 했다. 시민 정찬욱(45)씨는 "초등학교·중학교 당시에 무등경기장 주경기장에서 매스게임을 하고, 함성을 질렀던 기억이 아련하다"라며 "어찌됐든 광주·전남 지역민 모두가 스포츠를 통해 하나가 됐던 무등경기장이 사라진다고 하니 아쉬움이 앞선다"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1965년 10월5일 광주 무등경기장(당시 공설운동장)에서 열린 제46회 전국체전 개회식 장면을 보기 위해 몰려든 일부 관중이 정문을 넘어 들어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정문이 무너져 14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1971년 제7대 대통령 선거에서 신민당 대통령 후보로 나섰던 김대중 전 대통령이 수십만 명의 시민이 모인 가운데 정치연설을 하고 있다.

1981년 5월29일 광주 무등경기장에서 제10회 전국 소년체전 개회식이 열리고 있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새 야구장 24일 첫 삽…시민대표 5명 발파 참여

광주 새 야구장 기공식이 오는 24일 오후 2시 무등경기장 종합경기장에서 열린다. 기공식에는 강운태 광주시장과 지역 기관단체장, 기아자동차, KBO 관계자, 일반시민, 야구팬 등이 참여한다.

또한, 광주지역 초·중·고·대학 야구부 선수들과 타이거즈 출신 역대 '레전드' 들이 참가해 광주시민과 야구인들이 함께하는 축제의 장이 될 전망이다.

특히 이날 기공식 발파행사에는 일반시민 5명이 참여할 계획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다. 발파행사에 참여하는 시민 5명은 광주시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공모에서 20대1의 경쟁률을 뚫고 선발됐다. 이들의 참여 사연도 다양하다.

최상옥(84) 남화토건 대표이사 회장은 지난 1965년 현 무등경기장을 직접 건립한 당사자로서 그 마지막을 함께하고 싶다는 사연으로 선발됐고, 선천적 질환으로 투병중인 하주완(8)군은 병원치료 중에도 야구선수 응원 노래를 부르며 힘을 얻는다는 사연을 보내 선발됐다.

또 야구기록 분석원이 되는 꿈을 위해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프로야구 선수들 개개인의 기록을 꼼꼼히 기록해온 김슬지(19)양과 어려서부터 야구중계방송 아나운서 흉내를 내다가 결국 진짜 아나운서가 되었다는 류권형(37)씨, 서림초등학교 출신으로 야구와 무등경기장에 얽힌 추억을 가지고 제자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서울의 초등학교 교사 노명혜(49세)씨 등 5명이 영광을 안았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서재필 개혁사상, 현대서도 재조명되고 실현돼야"

보성 기념관서 서거 60주년 2차 학술세미나

송재(松齋) 서재필 박사 서거 60주년을 맞아 서 박사의 생애와 사상을 재조명하기 위한 제2차 학술세미나가 21일 보성 서재필기념관에서 열렸다.

광주일보사와 서재필기념사업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세미나는 지난 4월8일 독립운동가이자 언론인으로서 서 박사의 삶을 연구하기 위해 열린 1차 세미나에 이은 것으로, 구한말 개혁사상가이자 인술로서 조국에 봉사한 서 박사의 삶을 심도있게 다뤘다.

이날 세미나에서 서재필 박사의 개혁사상을 재조명한 임채완 전남대 교수에 따르면 서 박사는 정치분야에서 국민주권론과 민주주의 정치론을 주장, 정치에 대한 국민의 접근과 참여를 유도했다. 또 경제분야에서는 국민을 위한 재정, 재정 공개, 조세의 공정성, 부패억제의 필요성 등을 역설했으며 사회분야에서는 천부인권론을 기반으로 일반국민도 언론·집회·결사의 자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교육분야에서는 국민 모두가 교육받을 권리가 있고 특히 여성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했다.

임 교수는 "서 박사가 제기한 개혁과제 중 조세의 공정성, 부패억제 등은 여전히 실현되지 않고 있으며 가부장적 질서로 인한 남녀불평등은 아직도 해결해야 할 문제로 남아있다"며 "서 박사의 개혁사상은 현대사회에서도 재조명되고 계속 실현되어야 할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사로서 서 박사의 삶을 되돌아본 정상우 전남대 의과대학 교수는 "서 박사는 우리나라 최초의 의사이자 전문의, 병리학자이지만 조국과 동포 앞에서는 이 같은 사실을 드러내지 않아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의학은 겨레의 선구자이자 독립운동가인 서 박사를 버틸 수 있게 해 준 탯줄이었다"며 "서 박사는 20대에 의사가 되고 60대에 전문의가 되었으며 병리학자로서 많은 논문을 남긴 우리나라 최초의 진정한 의학자였다"고 되새겼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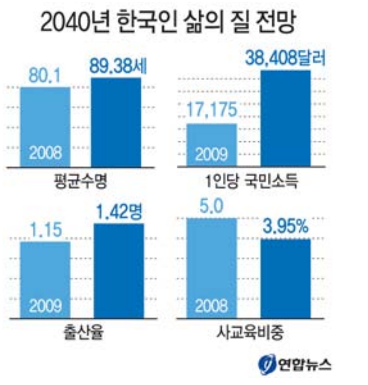
2040년 한국인 평균수명 90세…국민소득 4만달러

2040년에 한국인의 평균 수명이 90세에 이르고 1인당 국민소득이 4만달러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됐다.

또 청년 실업과 출산율은 높아지지만 사교육비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21일 기획재정부가 성균관대 하이브리드컬처 연구소로부터 제출받은 '2040년 한국의 삶의 질' 최종 보고서에 따르면 2040년 한국인의 평균 수명은 89.38세로 2008년의 80.1세보다 9세가량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1인당 국민소득은 2009년 1만7175달러에서 2040년에 3만8408달러로 두 배 이상 증가하고, 출산율도 2009년 1.15명에서 2040년 1.42명으로 개선될 것으로 추산됐다.



하루평균 여가는 2008년 4.8시간에서 2040년 5.87시간으로 늘어나는 반면 가구 지출 중 사교육 비중은 2008년 5%에서 2040년 3.95%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하지만, 2040년 전망이 모두 장밋빛은 아니었다.

청년실업률은 2010년 7.0%에서 2040년 8.62%로 늘어 청년들의 구직전쟁이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됐으며, 결혼의 필요성을 느끼는 인구는 2009년 56.6%에서 2040년 40.71%로 많이 줄어들 것으로 평가됐다.

자가 주택 소유율 또한 2004년 62.9%에서 2040년 56.12%까지 떨어져 부동산 가격의 지속적인 하락이 전망됐다.

노부모를 부양하겠다는 인구는 2008년 40%에서 2040년 19.20%까지 급감해 부모와 자식 관계가 급격히 멀어질 것으로 추정됐다. /연합뉴스

뉴스 브리핑

전남도 불법 어선 합동단속

전남도는 오는 30일까지 10일간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불법 어업 시·군 합동 단속을 벌인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어업지도선 18척(도 4척, 시·군 14척)을 동원, 도와 시·군 단속 공무원 75명이 동부반과 서부반 등 2개 반으로 편성해 도내 해역 및 내수면 일원에 대해 단속한다.

고졸 취업자 24세까지 입영 연기

내년부터 중졸자 및 일반계 고교를 포함한 모든 고졸자 가운데 병무청장이 정한 산업체 등에 취업한 사람은 누구나 24세까지 입영을 연기할 수 있게 된다.

병무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2월 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기존에는 마이스터고나 특성화고 졸업 후 취업자에 한해서만 24세까지 입영연기가 가능했다.

내년부터 로스쿨 군법무관 선발

내년 4월부터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자가 군법무관으로 임용된다.

국방부는 21일 "내년부터 배출되는 법학전문대학원 출신자를 군법무관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면서 "로스쿨 출신 선발 비율은 확정하지 않았지만, 사법연수원 수료자보다는 약간 적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사람을 찾습니다

1982년(당시 서구 효덕동) 현재 남구 진월동 동사무소 부근에 거주했던 **안영숙**(60세 초반)을 찾습니다.

[긴급 연락사항이 있으니 전화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062)261-1385

신병으로 고통을 받고 계십니까

내가 아닌 다른 존재에 의해 끌려다니시는 분 (빙의.신병)

♣ 우울증 / 불안 / 대인 공포증
♣ 환청이 들리시는 분
♣ 불면증 / 학습증진
♣ 기억력 회복 / 주벽이 심하신 분
♣ 병원에서 치료가 불가능하신 분

최면요법으로 확실한 해결이 가능합니다!

최면요법으로 빙의퇴치 등등 배우실분 선착순 5명모집

무등산 길상사 주지 법공

문의 062-228-6606 , 010-3747-6606

공무원 특별자금

무조회 기록서비스 • 개인신용정보관리 철저

◆ 대출대상 | 공무원, 교직원 ,사립교직원 , 군무원
◆ 대출금액 | 2백만~5천만원(무보증/무담보/무조회)
◆ 대출금리 | 년 6%정도(천만원당 월이자 5만원선)
◆ 대출기간 | 1년 ~10년(본인 선택 연장 가능)
◆ 과다대출 | 연체(등급미달)자도 해당

고금리 대출 이용 중 이시면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세요!

부동산 담보대출

대출한도 실거래적용 선순위 대출시세 90%에서 선순위 대출금 차감한 금액까지 가능
대출금액 선순위 - 년 5%~7.5%(은행금융권) / 후순위 - 월1.2%~3%

국민금융 (대부 제 642호) 대표1544-9430 담당 010-5554-2100

공무원 대출

무방문 • 무담보 • 무보증 • 무조회기록

⊙ 대상 - 공무원, 군무원, 교직원
⊙ 금액 - 3백만 - 4천만 (추가대출가능)
⊙ 금리 - 연 5%~7% (천만원 월이자 5만원 미만)
⊙ 기간 - 1년~10년 (퇴직기간까지 연장가능. 본인선택)
⊙ 사금융이용자 제1금융권으로 전환가능 (과다대출 포함)

APT 담보대출 한도 : KB시세~80%+α (60%) 금리 : 연 3.93%~
전세권 담보대출 한도 : 보증금의~80% 금리 : 연 5.9%~

★개인신용도에 따라 금리 및 대출비율은 변동 될 수 있음★

흥국금융 (대부 제 540호) 대표1544-5248 | 담당 010-7112-3135

제16회 전국 스피치 기능 경시 및 유치부·어린이 웅변 발표대회

◉ 일시 : 2011년 12월 18일(일요일) 오전 9시
◉ 장소 : 광주광역시 여성발전센터 강당 (상무지구)
◉ 주최 : 한국웅변연설인중앙회
◉ 주관 : 광주대학교 평생교육원 (스피치.연설.리더쉽지도자과정)
◉ 후원 : 통일부, 문화체육관광부,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시상계획

상의종류	시상훈격	수여인원	시상부분	부상
전체대상	국회의장상	1명	전체참가 연사중 가장 우수한 연사 1명	대형 은배 장학금
전체 최우수상	통일부장관상	2명	학생부(유치·초·중·고)와 대학일반부 중 가장 우수한 연사 각 1명씩	대형 은배 장학금
각부대상	광주광역시장상 전라남도지사상	10명	유치부, 초등저학년, 초등고학년, 중고등부, 대학일반부, 각 2명씩	대형 트로피 장학금
각부 최우수상	광주광역시교육감상 전라남도교육감상	12명	유치부4명, 초등저학년, 초등고학년, 중등부, 고등부 각 2명씩	중형 트로피 장학금
각부우수상	광주광역시의회의장상 전라남도의회의장상	24명	유치부8명, 초등저학년, 초등고학년, 중고등부, 대학일반부 각 4명씩	트로피 또는 시계 장학금
단체우승	국회외교통상통일위원장상	3팀	초등부1팀, 중고등부1팀, 대학일반부1팀	우승기 장학금

■원고내용 : 우리말 우리글 바로쓰기 및 한반도 평화와 미래지향적 통일기반구축을 위한 내용으로 아래 소재 중 하나를 선택하되 연제는 자유로 한다.
• 우리말 우리글의 뿌리를 알고 바로쓰기 위한 방안
• 그 외 유치부는 자유제 가능
■발표시간 : 유치부 2분, 초등부 3분, 중·고등부 4분, 대학·일반부 5분
■접수마감 : 2011년 12월 13일(화요일) 17:00
■접 수 처 : 503-230 광주광역시 남구 월산동 142-2 (2층) 한국웅변연설인 중앙회 TEL (062)385-7997, FAX(062)528-1020, 010-5692-9998
■명예대회장 : 남 경 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
■대 회 장 : 김 종 열 (한국웅변연설인중앙회이사장, 고려인삼제품공사 대표)
■대회집행장위원장 : 한 상 택 (한국웅변연설중앙회 회장)
■심사위원 : 대통령수상자 및 관계기관전문가, 언론인 등으로 구성 (추후발표)

못받은 돈!

합법적으로 받아드립니다!

■ 채권의 유형

채권의 유형	대상 채권
상거래 채권	물품대금, 공사대금 등
매매 채권	부동산, 동산, 준부동산
금전소비대차 채권	대여금, 투자금, 약정금, 곗돈 등
임차권 채권	주택, 상가, 차량, 중기 등의 사용료 대여료, 보증금
임금 채권	급여(정규, 일용)
가사	위자료, 양육비, 재산분할, 부양
구상권	보증인 구상, 신원보증 구상, 변제구상(제3자)
기타	저작권, 부당이득, 형사 합의금, 기타

차용증, 지불각서 상담

솔로몬신용정보

대표전화 062)606-9000 영업팀장(문채준) 010-5311-0086